

“남북교육교류, 속도가 아니라 내용”

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방안 논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일 제4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화해무드가 조성된 만큼 향후 교류·협력 방향에 따라 남북 교육교류 협력기금을 활용할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는 구상이다.

현재 전북교육청이 조성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약 8억6천만 원이다. 전북교육청은 2010년 ‘전라북도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차곡차곡 기금을 모아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참여 정부 시절 북한에 7억 8천만원 상당의 교과서용 종이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지원되지 못했고 2018년 역시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지만 지원할 상황이 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보고 남북교육교류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와 대외협력 실무팀을 보강하고 상상제안마당과 정책포럼 등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우리 학생들은 남북한 문화예술분야 교류를 가장 희망하는 영역으로 꼽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2019년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으로 남북청소년 열린음악회 추진 계획을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추후 실무 소위원회 정책팀과 대외협력팀의 실무 논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통 국악 교육의 전담이자 세계소리축제가 열리는 고장인기에 남부한의 청소년들이 전통음악 중심의 교류활동으로 민족 전통의 맥을 잇고 다양한 악기가 발달한 북한의 전통음악을 비롯한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협연함으로써 서로를 이해하고 평화 공존 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교육청이 8일 제4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미래 4차산업 시대를 준비하게 하고 국제교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과 시각을 갖게 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번 행사가 남북한의 청소년이 만나

소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학생·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교류활동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스쿨미투’ 성폭력 교사 징계 수위 ‘강화’

교육부 불법촬영·2차 가해 시 양정기준 마련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징계안 마련

과거 최소 견책서 정지·감봉으로 수위 높여

앞으로는 불법촬영을 하거나 성비위 관련 2차 가해를 야기한 교사는 최소 감봉과 견책부터 최고 파면까지 받게 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할 경우 더 엄격한 징계를 받게 된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교육공무원 징계령이 오늘 입법예고된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 양정기준을 마련했다. 피해자 신상을 유출하거나 권리구제를 방해한 경우, 폭언이나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한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감봉, 정직, 심하면 강등과 해임, 파면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징계 감경조치도 받을 수 없다.

불법촬영 및 유포에 대한 양정기준도 만들어졌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

인에 대한 불법촬영 또는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징계수위는 더 높다.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징계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희롱에 대한 징계와 같이 최소 감봉 및 견책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최소 징계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하게 됐다.

이밖에도 ▲학생 성적 및 학생부 관련 비위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미대응 ▲성비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미대응 ▲학생 신체 또는 정신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폭력 ▲그밖의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양정기준이 신설됐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한 교육공무원은 예전에 최소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정지·감봉으로 강화됐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이다. 위원 수를 최소 5~9인에서 9~15인으로 확대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징계사안마다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수 있게 했다.

퇴직공무원을 징계위원회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때 제한규정도 생긴다. 또한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 사유를 조사하거나 의견을 요구할 때 성평등·성폭력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의무화 됐다. 지금까지는 재량사항이었다.

개정령안은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달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전북대, 한국문화 세계화 위한 심포지엄 개최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해 지난 5월 창립한 ‘헬싱키 국제 한국연구회’와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가 11일과 12일 이틀간 전북대 인문사회관 208호 세미나실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한국 전통문화의 상징, 주제 인물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틀 간 ‘상

징과 문화 정체성’, ‘제의·놀이·축제’, ‘음악 인문학’, ‘역사·문화적 공간’, ‘인문과 조직’ 등 5개 섹션으로 나뉘어 20명의 저명한 연구자가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심포지엄을 마치고 나면 참여한 모든 연구자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전주가 자랑하는 문화재

와 볼거리를 체험하는 전주미래유산 투어부터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문화에 대해 다양함을 담았고, 특히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헬싱키 국제 한국연구회는 한국문화 세계화를 위한 주제가 100개가 될 때까지 연 2회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에서 선택된 17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헬싱키 국

립도서관과 손을 잡고 한국문화 시리즈로 출판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영문으로도 제작해 해외에도 소개할 방침이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하는 진상범 명예교수(독어독문학과)는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들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강홍석 교수 영국왕립화학회 JMC C 표지논문 선정

전주대 소재응용연구 소장 겸 탄소노신소재 공학과 강홍석 교수(단독 교신저자)와 한국연구재단 우치 우수해의신진연구자이며 소재응용연구소 소속인 테카린 테르파 데벨라(Tekalign Terfa Debela) 연구교수의 순수 이론 논문이 영국왕립화학회(Royal Society of Chemistry: RSC)의 학술지 JMC C(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C)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자구조의 특이성을 밝혀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텔루륨(Tellurium)이 한 가지 거시적 결정상만을 갖는데서 오는 잠재적 응용 한계를 보완한 셈이다. 이 연구에서 강 교수팀은 TeSe2가 기계적 요인으로 세 가지 거시적 결정상간에 서로 쉽게 변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각 상에서 전자가 갖는 특이한 스핀편향 성질도 계산을 통해서 예측하여, 향후 이 물질이 스핀전자공학에도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강 교수는 2017년에도 ‘Electronic Structure and Photocatalytic Band Offset of Few-layer GeP2’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새로운 종류의 2차원 층상물질인 GeP2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데 매우 유용한 광촉매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JMC A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F=9.931)’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편, 강홍석 교수는 2008년도 대한화학회 물리화학분과에서 1년에 총 1명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여러 제일 원리 계산을 통해 검증하고, 각 상의 전

두 교수는 논문 ‘Phase polymorphism and Electronic structures of TeSe2 (TeSe2의 상다형성과 전자구조)를 통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신소재물질인 TeSe2에 대해 3가지 거시적 결정상이 가능함을 여러 제일 원리 계산을 통해 검증하고, 각 상의 전

정확도를 높여, ‘JMC A (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F=9.931)’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동진 대한레슬링협회 상임부회장, 전북체육회 부회장 선임

전북체육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김동진 대한레슬링협회 상임부회장(전북체육회 이사)이 전북체육회 부회장이 됐다.



9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날 초제13차 이사회를 열고 김동진 이사를 부회장으로 선임했고, 최근 대한체육회가 김 부회장을 인준·승인했다. 김 부회장은 초등학교 재학중 레슬링에 입문했고, 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전북레슬링협회 전무이사,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대한레슬링협회 상임부회장직을 맡으면서 선수 저변 확대 등 한국 레슬링 발전에 노력해오고 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전북체육회 운영위원과 이사로 활동하면서 체육정책 자문과 종목단체 활성화, 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동진 부회장은 “전북체육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를 도와 전북체육 발전을 이끌겠다”며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초등학교 재학중 레슬링에 입문했고, 선수생활을 은퇴한 이후에는 전북레슬링협회 전무이사, 상임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대한레슬링협회 상임부회장직을 맡으면서 선수 저변 확대 등 한국 레슬링 발전에 노력해오고 있다. 아울러 김 부회장은 전북체육회 운영위원과 이사로 활동하면서 체육정책 자문과 종목단체 활성화, 지도자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김동진 부회장은 “전북체육회장인 송하진 도지사를 도와 전북체육 발전을 이끌겠다”며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진 부회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8 아시안게임’에 레슬링선수단 단장으로 출전했고, ‘제64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

2018 변산 노을축제

10월 20(토)~21(일) 변산해수욕장 일원

2018 변산 노을축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배경으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가 멋지게 어우러진 가을철 부안군 대표축제입니다.

놀거리: 가족단위 캠핑, 노을사진 찍기, 맨손 전어잡기·무료승마 등 체험활동
볼거리: 변산노을, 불꽃놀이, 기념공연(출연:변진섭, 김학래 등), 영화 상영(변산)
먹거리: 특산물 전시 및 시식

부안군